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길었던 성령강림절기가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레포즈 동호회에서는 천연비누와 천연치약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오후 1:45 지하 친교실로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가정 당 1만원입니다.

오늘 오후 1:30에 선교회장 간담회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의 활동 보고서를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nanumcc@naver.com)

3년 전에 화재를 당한 '개척자들'(기독교평화활동단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12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각 단체의 후원행사가 많이 열리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젤 34:11~16 / 시 100
엡 1:15~23 / 마 25:31~46

습 3:14~20

오늘 식당 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공재량 이선화 최영혜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김혜정 류정옥 이광재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커 피 대 접 : 심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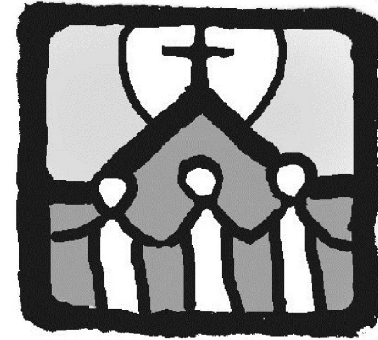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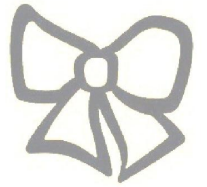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었던 성령강림절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추수가 끝난 빈 들판에 새로 보리를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냉랭한 세상이지만 하늘의 운기를 믿고 새로운 세상의 꿈이 담긴 씨앗을 뿌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 되신 청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이 감사함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과 더불어 기대 속에서 새해를 내다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마음들이 모이게 하시고, 사랑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경혜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주영
 김준호 곽해자 김필순 박다니엘 박영희 박옥순 방문성 박혜경 변재민
 이소혜 성귀옥 김중현 양상철 박재란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이부곤 이순용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임호성 정선희 정현모 조문규
 진정숙 한규숙 한성건 정지혜 홍성식 이유리 홍순복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인걸 김진중 안수연 김태정 김향자 심화섭 정영란
 전인섭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녹색꿈헌금

강순배 박호규 강영님 이정우 장윤지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조순덕	오유정
신진식	최경미	이재문	서원금
장영숙	신영신	김명순	박경선
노순옥	진정숙	문금석	안정숙
박홍재	박홍재	조영순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김영례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강순배
곽권희	윤수진	이수진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김정현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송양진
박혜경	박혜경	김민화	정현선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마음으로 읽는 글

상처 입은 세상을 찬미하러 노력하라

- 아담 자가예프스키

상처 입은 세상을 찬미하러 노력하라

6월의 긴 날들을

산딸기와 로제 와인 방울과 이슬을

쫓겨난 사람들의 농장 위를 빈틈없이 뒤덮는 썩기품을 기억하라

너는 상처 입은 세상을 찬미해야만 한다

네가 본 멋진 요트와 배들,

이들 중 하나만 먼 여행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에겐 소금기 가득한 망각만이 기다린다

너는 갈 곳도 없이 걷고 있는 난민들을 보았고

처형자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것도 들었다

상처 입은 세상을 찬미해야만 한다

하얀 방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순간을 기억하라

커튼은 펠릭이고 있었다

음악이 폭발하던 콘서트의 기억으로 돌아가라

가을이면 너는 공원에서 도토리를 주웠고

나뭇잎들이 땅의 흉터 위에 소용돌이쳤다

상처 입은 세상을 찬미하라

개똥지빠귀가 잃어버린 회색의 깃털을

흩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드러운 빛들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노래의 주인 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에 참된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를 뿐, 뜻과 힘을 다하여 부를 하늘의 노래가 있음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하현철 권사 조문규 권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강세기 정원석 이현순 이소애
	헌금위원	한상익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생활과 신앙이 하나였던 시절의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춧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뿔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 이문재, <오래된 기도>

시인이 옳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을 감지 않아도 모든 것에 기도가 있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만큼 기도를 획일적으로 만든 종교도 없다. 특히나 속상한 것은, 기도조차 효율성의 논리

에 의거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쏟아내야 ‘은혜로웠다’는 맘이 들게 했다는 거다. 단 10-20분도 침묵하지 못하는 이들이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고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는 기도를 생각할 수나 있을까.

정홍규 신부가 번역한 <지구를 위한 할아버지의 기도>에도 ‘오래된 기도’가 나온다. 이문재 시인은 아마도 여기에 영감을 받아 위 시를 썼을 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지. 고개를 숙여 꽃의 향기를 맡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단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조용히 해돋이를 바라보거나, 지구가 돌아가고 있음을 느껴보거나, 새로이 시작되는 날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기도 중 하나란다. 겨울날 눈 덮인 숲 속에 서서 너의 숨결이 세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느껴보는 것도 기도 중 하나란다.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도 중 하나이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의 손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들을 함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이지.” ...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또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단다. 할아버지가 안 계신 이 세상은 어둡고 쓸쓸해 보였다.

어느 날 내가 산책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키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를 찾아 그 위에 앉았다. 가지들은 머리 위에서 흔들거렸고 미풍은 나뭇잎 사이에서 속삭였다. 나는 가까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울새가 인동덩굴 사이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들었다 - 산들바람과 새의 노래와 물소리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지구는 기도하고 있었다. 바로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

진정한 기도란 지구의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 박충,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중에서